농촌활력과, 사회복지과, 기업지원과, 인권담당관

전북도, 6월 전북을 화려하게 빛낸 부서 선정

부서간 선의의 경쟁 유도로 도정 성과 창출 극대화

농촌활력과, 사회복지과, 기업지원과, 인권담당관. 2021년 6월, 전라북도를 화려하게 빛낸 4개 부서가 선정되었다.

전북도는 16일 6월 중 업무성과가 탁월하여 전북의 위상을 빛낸 4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부서는 농촌활력과, 우수부서에 사회복지과, 기업지원과, 인권담당관이 선정되었다. 특히 최우수 부서인 농촌활력과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기능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공모사업에 전국 최고의 선정률 달성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농촌형 생활 기반 시설 확충에 이바지하였다.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 방향을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원방식을 전환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3개 시군에 총 1,258억 원(국비 900, 지방비 358)을 확보했다. 시군당 국비 지원액은 무려 300억 원에 이른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사회복지과, 기업지원과, 인권담당관실의 면면도 화려했다.

사회복지과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내리 7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 체감도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으로 내년도 추가 배분 예산을 받게 된다.

기업지원과는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 전환과 디지털 사업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지원 등 활성화가 기대된다.

호남권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14억 원을 지원받아 76개소 화상 회의실을 구축하여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의 비대면 화상회의 지원으로 전북형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게 되었다.

인권담당관은 2021년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개최로 전북인권 사무소 설치와 인권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부각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순수 인권옹호자 포럼으로 민관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 구독자 수가 261% 증가하는 등 도민 참여형 적극 행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전대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도정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함으로써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도정 성과를 지속적으로 극대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11대 핵심과제, 공약사업 등 각종 도정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으뜸 도정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정된 부서에는 격려금과 최우수 부서 가점 및 개인 가점을 성과로 부여하고 있다. /이연화 기자

전남축구협회, 프로젝트 위드 도내 학생선수 진로탐색 나서

전남축구협회와 프로젝트 위드가 도내 학생선수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라남도축구협회(회장 신정식)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해남중, 광양여고, 전남과학대 등 도내 학생 선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5급 축구심판 자격증코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습회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경력관리 기업 프로젝트 위드가 진행중인 WITH NFT DONATION 기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스포츠 스타의 소장품을 기부받아 NFT로 판매하여 이를 다시 축구시장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후원됐다.

전남출신으로 활약 중인 프로축구 김영광 선수(성남FC)의 소장품 경매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번 강습회를 통해 도내 학생선수들이 축구선수의 진로 이외에 축구심판이라는 진로에도 관심을 갖고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5급 신인심판 강습회에 참석해 필기, 실기, 체력테스트에 합격한 합격자들은 앞으로 축구선수와 더불어 대한축구협회 5급 심판으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위드 이웅장 대표는 "WITH NFT Donation 캠페인의 첫 시작을 전남축구협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축구선수와 팬이 함께 기부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축구 시장에 환원하여 전반적 축구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선순환 WITH NFT Donation 캠페인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특히 기부금 지급도 위드의 가상자산인 WIKEN으로 진행되는 만큼 토큰실사용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정식 회장도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인 엘리트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진로탐색 및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드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번 기부교육을 계기로 우리나라 내 다양한 축구협회에서도 이와 같은 기부 캠페인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젝트 위드는 블록체인 기반 스포츠 경력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소년 등 축구 선수의 데이터를 취합 및 유통함으로써 투명한 스포츠 시장 경력 기회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하인숙 기자

이상동 광주광역시체육회장

도쿄올림픽 대표선수단 격려!

9일 유도 김성연에게 선수 대표로 격려금 전달 … 광주 총 6개 종목 10명 출전

이상동 회장,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감동 선사 당부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이상동)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광주 대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격려했다.

시체육회는 9일 오전 10시 체육회관 소회의실에서 이상동 체육회장 등 임직원들이 여자유도 김성연(-70kg급, 광주도시철도공사)에게 선수단을 대표해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주를 대표해 출전할 선수단은 박채순(양궁 총감독, 광주시청), 송칠석(양궁 여자부 코치, 광주체고), 구교동(남자 에뻬 코치, 광주서구청) 등 임원 3명과 안산(양궁, 광주여대), 전웅태(근대5종, 광주시청), 강영미(펜싱, 광주서구청), 권하림(다이빙, 광주시체육회), 강경민, 원선필(이상 핸드볼, 광주도시공사), 김성연 등 선수 7명, 총 6개 종목 10명이다.

박채순 양궁 총감독은 지난 2016 리우올림픽에 남자대표팀 감독으로 출전해 한국 양궁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남자대표팀인 구본찬·김우진·이승윤이 합작한 단체전 금메달과 구본찬의 개인전 금메달로 2관왕에 오르며 한국 양궁이 최초로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위업을 달성하는 데 일조했다.

강영미, 김성연, 전웅태도 지난 리우올림픽에 참가했지만 세계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5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시체육회는 이번 올림픽에서 광주의 효자 종목인 양궁과 근대5종의 선수가 출전하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주변국의 견제와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어렵게 개최하는 이번 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잘 극복해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인숙 기자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유도 김성연 선수에게 격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흥수 광주시유도회 부회장,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김성연 선수, 신대철 광주시유도회 전무이사)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홈페이지 오픈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60여일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를 공개하여 본격적인 대회 홍보와 정보제공에 나선다.

체전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대회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회 종료 시까지 수시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제60회 전남체전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고 도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남체전 홈페이지는 반응형 홈페이지로 PC, 태블릿, 모바일 등 다양화된 스마트기기에 맞춰 화면이 구성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홈페이지는 대회소개, 행사정보, 경기정보, 관광정보, 참여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정보 뿐만 아니라 공개행사, 영광 관광정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체전기간 동안 펼쳐지는 경기결과를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응원메시지', '포토갤러리'등 전남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60회 전남체전 조직위는 지난 6월 18일 시·군 및 종목단체 관계자 회의를 시작으로 대회 80여 일을 앞두고 디데이 카운터기를 설치하는 등 단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인숙 기자

전라북도의회 하반기 첫 임시회 개회!

19~28일까지 10일간, 도청 및 교육청 실 · 국 · 원별 업무보고 청취

전라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가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특히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시 집행부 참석 공무원을 실.국.과장 등으로 최소화하고, 업무보고 시간도 단축하는 등 임시회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코로나19 지역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 인원으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19일 오후 2시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종식(군산2) · 김대중(정읍2) · 황영석(김제1) · 두세훈(완주2) · 최영규(익산4) · 최영일(순창) · 박용근(장수) · 김만기(고창2) · 조동용(군산3) 의원이 차례로 나서 지역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강용구 의원(남원2)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지역 및 지방자치 현안을 정부 및 중앙 정치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20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실.국.원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연초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안 · 동의안 등 총 28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현장활동 등을 통해 도민의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예정이다.

제383회 임시회는 7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 처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폐회된다. /이연화 기자

本社 辭令

▶ 정순영(초대회장) ▶ 허성명(업무국장) ▶ 김은숙(광고국장)
▶ 김병중(기획국장) ▶ 이태유(나주시 지사장)
▶ 임낙진(화순군 지사장) ▶ 신청관(담양군 지사장)
▶ 백정일(광양, 여수, 순천시 지사장)
▶ 김용만(장흥, 강진, 보성군 부장)
▶ 이정재(상임고문) ▶ 천형욱(고문변호사)
▶ 홍보대사 – 안남열, 신기류, 허현희
▶ 고 문 – 김시환, 이대겸, 이중재, 김영모, 신승희
▶ 자문위원 – 김수영, 김옥자, 안영신, 안남열, 정충영, 김소정, 진선기, 빛나라
▶ 운영위원 – 김미란, 김용규, 김금희, 김연화, 박정희, 이지영, 조영희, 유병천, 이성범